

정월: 설

한국의 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음력 1월1일을 설이라고하고, 근신하며 경거 망동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신일이라고 합니다. 묵은 일년이 지나고 설을 기점으로 새로운 일년이 시작되고, 한해의 좋은 운을 갖기 위해서는 그 첫날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양력 1월1일을 설로 하지만, 한국은 음력 1월1일이 설입니다. 설 아침에는 빨리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새로운 옷으로 가라입고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에게 (세배)절을 한후 떡국을 함께 먹습니다. 또 많은 음식을 이웃사람들에게 나눠 줍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웃과 친해집니다.

조부모에게 절을 하면 아이들은 조부모로부터 세뱃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설에 하는 세배는 중요합니다.

설이되면 하는 민속놀이가 몇개 있습니다. 우선, 우아하게 한국의 고유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라고 하는 것은 긴판의 중앙을 둥글게만 명석대에 놓고, 그 양 끝에 사람이 서서 교대로 뛰어오르는 놀이입니다. 또 높은 하늘에 연을 날리면서 소망을 비는 놀이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움푹 패인 공간에 동전을 얹은 종으로 싸고 깃털처럼해서 발의 안쪽으로 차올리는 제기차기놀이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설은 먼 곳에 살고 있는 가족을 모이게 해서 가족의 사랑과 조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합니다.

그리고 민족놀이를 통해서 협동과 인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는 날입니다.